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practice virtue
can only make our hearts
purified and emptied.



11 2024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24 / 11

시절 인연	02	행복은 나누는 것이다
법정 스님 따라 하기	07	말 많은 자의 재앙
법정 스님 편지	10	이렇듯 답답하고 숨막히는 계절에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12	안주 지신安住地神
다시 만나는 법정 스님	15	가랑잎 구르는 소리
특별기고 / 준초이	18	반가사유상
다실에서 / 류시화 시인의 시	20	세상의 그대들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21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 소식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24년 11월 1일 발행 / 통권 357호 / 등록일 1999년 6월 23일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발행 편집인 덕일 / 기획 편집 홍정근

발행처 (사)맑고 향기롭게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팩스 741-4698

디자인 인쇄 디자인나경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대표메일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실천하고 전파하기 위해 법정 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팩스 (02)3672-5947

홈페이지 <http://www.gilsangsa.or.kr>

대표메일 kilsangsa@hanmail.net

행복은 나누는 것이다

- 법정 스님 2000년 10월 15일 정기법문 1

가을을 흔히 수확의 계절 혹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수확은 뿌리고 가꾼 자만이 거둘 수 있습니다. 뿌리고 가꾸지 않은 사람은 가을이 와도 거두어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수확이나 결실 이런 표현은 어디까지나 인간 본위로서 하는 소리입니다. 자연의 입장에서는 가을이 수확의 계절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계절입니다. 여름날 피약벌 아래서 가꾼 이삭과 열매와 잎과 뿌리를 모두 나누어 줍니다. 곡식과 과일, 채소 등을 무상으로 다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눔에 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가 즐겨 읽는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만물을 생성하고 양육하지만 자기 소유로 삼지 않고, 스스로 이룬 바 있어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으며, 온갖 것을 길러주었으면서도 아무것도 거느리지 않는다. 이것을 일러 크나큰 덕이라 한다.

자연은 다 나누어 줄 뿐 아무것도 차지하거나 거느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공을 절대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자연의 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위대한 교사라고 합니다.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현대의 문명과 문화는

본질적으로 물질적이고 감각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표피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벌어들이는가, 내가 얼마나 재산이 많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예쁘고 잘났는가.' 마치 이것이 성공의 척도처럼 보여집니다.

과연 이것이 성공의 척도일까요? 물건과 재산만으로, 잘생긴 얼굴만으로 사람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각자 스스로 물어보세요. 옛날 사람들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편리한 기계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환경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보다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요?

북인도 라다크 지방에 사는 어느 티베트 노인은 서양 기자와의 문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깥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식탁과 의자와 카펫을 가지고 편안하게 산다고 들었다. 쌀과 설탕 등 행복에 필요한 모든 걸 갖고 있다고 들었다. 나는 보리떡과 죽밖에는 먹을 것이 없다. 하지만 나는 행복하다. 나는 이가 다 빠져 많이 먹을 수도 없다. 당신들은 좋은 옷을 입었지만 보다시피 내 옷은 다 해진 누더기다. 그런데도 바깥세상에 많은 불행이 있다고 나는 들었다.'

서양 기자가 '불행의 요인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으니 그 노인이 다시 대답합니다.

'유심히 들어 보세요. 아마도 당신들이 갖고 있는 좋은 옷과 재산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당신들은 기도하고 명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불행한 것은 가진 재산이 당신들에게 주는 것보다도 빼앗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노인의 이야기로 넘길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반문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많이 가지고, 많이 차지하면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하지만,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전통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웃에게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가, 내가 이웃들에게 얼마나 많이 나누어줬는가를 성공의 척도라고 여깁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아메리카 인디언의 문화는 그 본질이 지극히 영적입니다. 서부 영화를 보면 인디언들이 미개하고 잔인한 걸로 나오기도 하는데, 원래 인디언은 가장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아주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미대륙에 살던 인디언들이야말로 감각적이고 표피적인, 물질문명이 오염되지 않은 지구상에서 가장 순수한 원주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중심을 잃고 있습니다. 유럽이고 미국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구가 못 살겠다고 자꾸 털어내지 않습니까? 20세기 말부터 인류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인도, 중국 북쪽에는 아주 황량한 사막이 몇 시간 동안 펼쳐집니다. 저는 그 걸 볼 때 오늘날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 길들여진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고, 이대로 살다 보면 언젠가 지구가 초토화되어 사막화되지 않을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 문명은 지금 크게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삶의 의미를 모르고, 대지와 의 관계도 단절되어 있습니다. 뒤늦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건강하고 평화스럽게 살던 인디언들의 지혜에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인류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인디언들은 본래 몽골 계통이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느낀 건데 인디언 촌에서 자고 아침에 식당에서 일하는 분을 보고 한국 시골 아주머니들과 너무 닮아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말만 다를 뿐 우리와 너무 유사했습니다. 원래 몽골 계통 사람들인데 베링해가 바다로 되기 전 육지화일 때 북미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우리과 같이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엉덩이에 있는 몽고반점도 인디언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언어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우리말과 몽골에서 파생된 유사한 말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친근감을 느낍니다.

인디언들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전혀 생색을 내지 않고, 상대방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두고 말없이 간다고 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무슨 뜻을 달거나 이유를 붙여서 선물하지 않습니다. 불교적인 표현으로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히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나이 든 노인, 홀로 된 부인과 고아들을 누구보다도 먼저 돌보는 것이 부족의 전통입니다. 물고기를 잡거나 사냥하더라도, 먹을 만큼만 최소한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이 아니고 두고두고 자기 자손들까지도 먹어야 하고, 같이 살아야 하므로 꼭 필요한 양만 최소한으로 가집니다. 그리고 살생하기 전에는 반드시 미안하다고 내가 부득이 너를 먹어야 하므로 양해해 달라고 말하고 사냥합니다. 사냥을 마칠 때마다 큼직한 고깃덩어리를 가장 필요로 하는 집 문전에 슬쩍 놓아두고 갑니다.

인디언들에게는 12가지 계율이 있는데, 그중에 9번째 계율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큰 부를 얻으려고 탐욕을 부리지 말라. 부족 중에 궁핍한 사람이 있는데도 어떤 사람이 지나친 부를 소유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이웃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혼자서 독차지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이 쌓이면 어떤 행사를 통해서 다 나누어주는 부족의 질서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12번째 계율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의 인생을 사랑하고 완성하라. 그대 삶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라. 지금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라. 그대의 이웃에 많이 봉사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이 사람들의 계율이고, 생활의 규범입니다.

이와 같은 인디언들이 어떻게 미개인이 될 수 있습니까? 백인들의 우월 의식, 처음 미대륙에 침략한 선교사들의 독선에서 비롯된 그런 오해입니다. 인디언 자체는 그렇게 선량하고 자연 친화적이고, 가장 건강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왔던 부족들입니다. 어떤 개인에게 주어진 재능이나 재물은 원천적으로 그 개인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우주의 선물입니다.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단지 맡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실체가 없습니다. 한때 인연에 의해서 물질이 화합하고, 거기에 무슨 생각이든가 정신이 들어가서 사람을 이루었지만 언젠가 흩어지지 않습니까?

‘나’라는 실체를 분석해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맡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독특한 재능과 건강과 맡겨진 재물을 자기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의해서 그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 이 글은 2000년 10월 15일 법정 스님이 길상사 설법전에서 하신 법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법문은 어떤 책으로도 출간되지 않았으며, 2회(11월호~12월호)에 걸쳐 연재됨을 알려드립니다.

2. 법정 스님 따라 하기

말 많은 자의 재앙

보살은 재상의 집에 태어나 장성한 후에는 왕의 스승이 되었다. 그 왕은 시도 때도 없이 말하기를 몹시 좋아했다. 그래서 왕이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면 다른 사람은 전혀 말을 붙일 수가 없었다. 보살은 어떻게 하면 왕의 이와 같은 버릇을 고쳐 줄까 궁리를 했다.

마침 그때 히말라야 밑에 있는 한 호수에 거북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곳에 백조 두 마리가 먹이를 찾아 날아와 서로 친해졌다. 하루는 백조가 거북에게 말했다.

“우리가 살던 히말라야 중턱에는 눈부신 황금굴이 있는데, 우리와 구경하러 가지 않겠소?”

“내가 그 먼 데까지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당신을 데려다 드리지요. 당신이 입을 다물고 아무하고도 말을 하지 않는다면요.”

거북은 다짐했다.

“입을 다물겠소. 제발 소원이니 나를 그 황금굴에 데려다 주시오.”

두 마리 백조는 나뭇가지 하나를 거북의 입에 물린 후 자기들은 그 양쪽 끝을 물고 하늘을 날았다. 이때 백조가 거북을 데리고 가는 모양을 쳐다보고, 동네 아이들이 떠들어 댔다.

“야, 저것 봐라. 거북이 백조에게 물려 가고 있네.”

거북은 자신이 백조에게 물려 간다는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해, 꼬마들에게 욕을 해 주고 싶었다.

“친구가 나를 데리고 가는데 너희들이 무슨 참견이나. 이 고안 놈들…….”

거북은 이렇게 말하느라 물었던 나뭇가지를 생각 없이 놓아 버려, 그만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다.

이때 백조는 빠른 속력으로 궁전 위를 지나가던 참이었다. 마침 왕은 궁전 뜰에 떨어져 조각난 거북을 보고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님, 거북이 왜 이처럼 떨어져 죽었을까요?”

지혜로운 스승은 차근차근 대답했다.

“이 거북과 백조는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이였을 것입니다. 백조가 거북에게 히말라야 중턱의 황금굴로 데려다 주겠다고 입에 나뭇가지를 물리고 공중을 날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 많은 거북이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어 무엇을 지껄이려다가 나뭇가지를 놓아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지나치게 말이 많은 사람은 그 말 때문에 언젠가는 이와 같은 불행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부터 왕은 말을 삼가게 되었다.

〈자타카 215〉

*법정 스님 강론

‘입은 재앙의 문’이라는 말이 있듯이, 입을 잘못 놀리면 스스로 화를 불러들인다. 세상이 이처럼 시끄러운 것도 할 말 안할 말을 가리지 않고 함부로 쏟아 놓기 때문일 것이다. 〈숫타니파타〉 같은 초기 경전에도 다음과 같은 교훈이 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입 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그 도끼로 자신을 찌고 만다.”

또 〈진리의 말씀(법구경法句經)〉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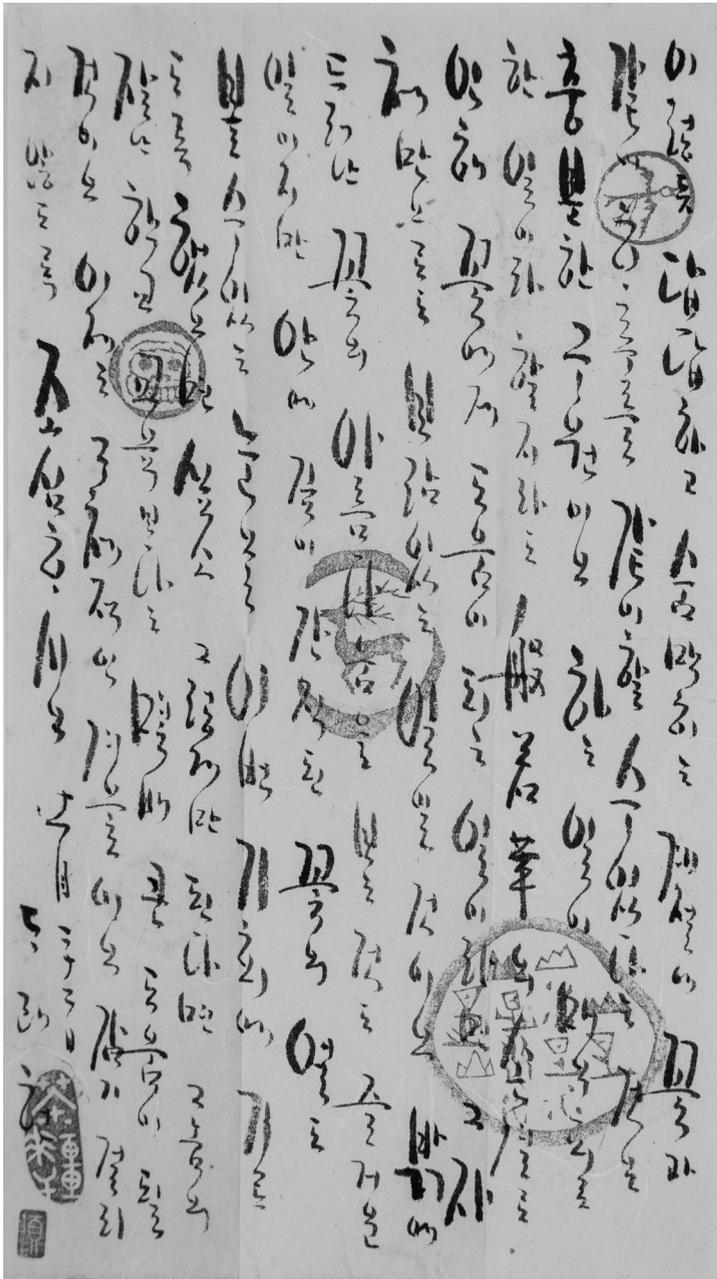
“아무리 아름답고 빛이 고울지라도 향기 없는 꽃이 있듯이, 실천이 따르지 않는 말은 그 열매가 없다.”

우리는 말을 안 해서 후회하는 일보다는 입 밖으로 말을 쏟아버렸기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동서고금을 물을 것 없이 독선적인 지배자는 자신의 말만을 끝도 없이 늘어놓으면서 스스로를 선전하고 과시하며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든다. 그러나 지혜로운 지도자는 자신의 말보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지혜의 샘을 깊게 한다.

입에 말이 적어야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뀐다는 이치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3. 법정 스님 편지



이렇듯 답답하고 숨막히는 계절에
 꽃과 같이 하루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한 구원이요,
 하는 일이 매우 피로한 일이라 할지라도
 반야화般若華의 손길로 인해
 꽃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보람 있는 일일 것이요,
 밖에 드러난 꽃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안에 깊이 간직된 꽃의 열도 볼 수 있는 눈을
 이번 기회에 기르도록 했으면 싶소.
 그렇게만 된다면 그놈의 잘난 학교 교육보다는
 몇 배 큰 도움이 될 것이요,
 이제는 구체적인 겨울이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요.

11월 22일

다래헌

* 이 편지는 법정 스님이 1975년 11월 22일 백경림 반야화 님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안주 지신安住地神

선재동자는 마가다국의 보리도랑에 있는 안주 지신의 처소를 찾아갔다. 백만의 지신들이 그와 함께 있으면서 서로 말했다.

“지금 오는 동자는 곧 부처의 광[藏]이니 반드시 중생들의 의지처가 될 것이며, 반드시 중생들의 무명 껍질을 깨뜨릴 것이다. 그가 이미 법왕의 문중에 났으니 마땅히 때를 벗고 걸림 없는 법 비단[法縑]을 머리에 쓸 것이며, 지혜의 큰 진보장[寶藏]을 열고 샅된 외도들을 꺾을 것이다.”

이때 안주 지신 등 백만의 신이 광명을 놓아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비추니, 대지가 한꺼번에 진동하고 갖가지 보물이 곳곳마다 장엄하고 그림자가 맑고 빛이 흘러 번갈아 사무쳤다. 모든 잎나무는 한꺼번에 자라나고 꽃나무도 일시에 꽃을 피우고 과일나무에는 열매가 탐스럽게 익었다. 강물이 넘실거리고 모든 못에는 물이 가득 고였으며, 향기로운 봄비를 내려 대지를 적시고 바람은 꽃을 불어와 그 위에 흩었다. 온갖 음악이 일시에 연주되고 하늘의 장엄거리가 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니, 소와 코끼리와 사자들이 기뻐서 뛰놀며 소리쳤다. 마치 큰 산끼리 부딪쳐 내는 듯한 소리가 나며 문혀 있던 수많은 보배가 저절로 솟아났다.

안주 지신이 선재에게 말했다.

“어서 오너라, 동자여. 그대가 이 땅에서 일찍이 선근을 심었기에 내가 몸을 나타내는 것이니, 그대가 보겠는가?”

선재는 지신에게 절을 올리고 합장하고 서서 말했다.

“성자시여, 보겠습니다.”

이때 안주 지신이 땅을 밟아 한량없는 보장[寶藏]이 저절로 솟아오르게 하고 말했다.

“선남자여, 이 보장은 그대를 따라다니는 것들이다. 이것은 그대가 옛적에 심은 선근의 과보이고 그대의 복력으로 유지되는 것이니 그대는 마음대로 사용하라.

나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으니, 이름은 깨뜨릴 수 없는 지혜장藏이다. 항상 이 법으로 중생을 성취시킨다.

내가 생각하니, 연등부처님 때부터 항상 보살을 따라 공경하고 호위했으며, 보살들의 마음과 행과 지혜의 경계와 모든 서원과 청정한 행과 삼매와 광대한 신통과 자유자재한 힘과 깨뜨릴 수 없는 법을 살펴보았다. 모든 불국토에 두루 들어가서 부처님들의 수기를 받았으며, 부처님의 법륜을 굴리며, 경전의 문을 널리 말하며, 큰 법의 광명으로 널리 비추어 중생을 가르치고 조복하며, 부처님의 나타내는 신통 변화를 내가 모두 받아 지니고 기억한다.

지나간 옛적 수미산 미진수겁을 지나 장엄겁莊嚴劫이 있었는데, 그 세계의 이름은 월당[月幢]이고 부처님의 명호는 묘안[妙眼]인데, 그 부처님에게서 이 법문을 들었다.

선남자여, 나는 이 법문에 드나들면서 닦고 익히고 늘어나게 했으며, 여러 부처님을 항상 뵈고 떠나지 않았다. 이 법문을 처음 얻어 현재의 겁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여래·응공·정등각을 만나 받들어 섬기고 공경 공양했으며, 저 부처님들이 보리좌에 나아가 큰 신통을 나타내심을

보았으며, 그 부처님들께서 지니신 모든 공덕과 선근도 보았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깨뜨릴 수 없는 지혜장 법문을 알 뿐이다. 그러나 저 보살 마하살들은 부처님을 항상 수행하면서 모든 부처님의 말씀을 잘 지니고 부처님의 깊은 지혜에 들어가 생각마다 모든 법계에 충만하다. 여래의 몸과 같고 부처님의 마음을 내며, 불법을 갖추고 부처님의 일을 짓는 것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의 행을 말할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이 염부제 마가다국의 가비라성에 밤을 주재하는 신[主夜神]이 있으니 이름이 바산바연지婆珊婆演底이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선재동자는 자신에게 절을 올리고 길을 떠났다.

5. 다시 만나는 법정 스님

가랑잎 구르는 소리

요즘 산길에는 가랑잎이 수북이 쌓여 있다. 올가을은 가뭄이 심해 물든 나뭇잎들이 이내 이슬다가 서릿바람에 휘날리며 낙엽이 되고 말았다. 여기저기 지천으로 널려 있는 가랑잎을 밟으면서 산길을 거니노라면 세월의 덧없음을 새삼스레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은 오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라는 말에 고개가 끄덕거리진다.

여름날 무성하던 잎들이 가을바람에 시름시름 앓다가 낙하여 땅 위에 뒹굴고 있는 모습을 대할 때, 계절의 질서와 함께 뿌리로 돌아가는 생명의 실상을 엿보는 것 같다.

뜰에서 있는 후박나무와 오동나무 잎이 떨어지는 소리에, 나는 번번이 사람의 발소리인가 싶어 귀를 모으곤 했다. '푹'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문득, 이 순간에 누군가 이 세상을 하직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순간순간이 우주 생명의 바다에서 보면, 탄생과 죽음의 고리로 이어져 있다. 그러니 한 생명의 탄생은 그 순간부터 죽음으로 이어지고, 한 목숨의 죽음은 새로운 탄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변하거나 죽지 않고 언제까지고 한결같이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 모두가 한때일 뿐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때를 어떻게 사느냐에 의해서 삶의 양상은 천태만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삶의 양상은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다. 개인도 그렇지만 공인의 경우는 그 진폭이 훨씬 크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인간의 역사는 인과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몇 번이고 들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완전 범죄란 허용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도 함께 들었다.

언론의 희생과 함께 하나하나 우리들의 지나온 날들의 실상이 밝혀질 때마다 우리가 어떤 세월 속에서 살아왔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온갖 비리와 부정과 억압과 강탈과 폭력이 난무하던 사회를 우리가 살아온 것이다. 우리에게 허락된 생애의 귀중한 한 세월을 그런 먹구름 속에서 지내왔는가 싶으니 어처구니가 없고 허탈해지려고 한다.

그런 세상을 통치하는 당사자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복지사회를 건설하며 청렴결백한 공직자 운운하면서 우리 모두를 속여온 것이다.

떠도는 소리는 있어도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한 시대였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는 나라 살림살이를 알 길이 전혀 없었다. 만약 보도 매체들이 제대로 그 기능을 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활개를 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앞선다. 결국 언론의 부재는 정권을 탈취한 당사자들이나 국민 모두에게 다 같이 말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고 말았다는 명백한 역사적인 교훈이 우리 시대에 증명된 것이다. 언론의 학살은 그 언론을 학살한 당사자의 비참한 종말을 자초하고 만 것이다. 이것

이 인과관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세상에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정도의 차이, 큰 눈으로 보면 모두가 거기서 거기일 것이다.

가해자건 피해자건 돌려세워 놓은 뒷모습은 모두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고, 저마다 인간적인 우수가 깃들여 있다. 문제는 자신들이 저지른 허물을 얼마만큼 바로 인식하고 진정한 뉘우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인간적인 자질이 가능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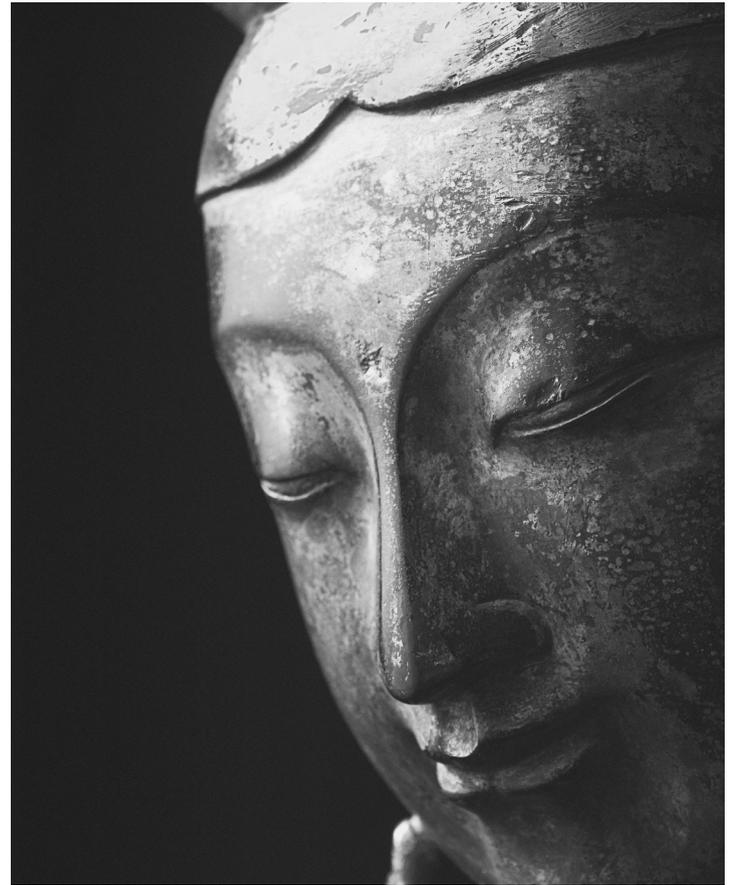
거듭 말하지만,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권력도 금력도 명예도 체력도 사랑도 증오도 모두가 한때일 뿐이다. 우리가 어떤 직위나 일에 나아가고 물러남도 그런 줄 알고 진퇴를 한다면 분수 밖의 일에 목말라하며 연연하지 않게 될 것이다. 숲은 나목裸木이 늘어가고 있다. 응달에는 빈 가지만 앙상하고, 양지쪽과 물기가 있는 골짜기에는 아직도 매달린 잎들이 남아 있다. 하지만 무서리가 내리고 나면 질 것은 다 지고 말 것이다. 때가 지나도 떨어질 줄 모르고 매달려 있는 잎은 보기가 민망스럽다. 때가 되면 미련 없이 산뜻하게 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빈자리에 새봄의 움이 틀 것이다.

꽃은 필 때도 아름다워야 하지만, 질 때도 또한 아름다워야 한다. 왜냐하면 지는 꽃도 또한 꽃이기 때문이다. 죽음을 생의 종말로만 생각한다면 막막하다. 그러나 죽음을 새로운 생의 시작으로도 볼 줄 안다면 생명의 질서인 죽음 앞에 보다 담담해질 것이다. 다 된 생애 연연한 죽음은 추하게 보여 한 생애의 여운이 남지 않는다.

뜰에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가랑잎도 하루 이틀 지나면 너절할 쓰레기나 마찬가지로. 날이 밝으면 말끔히 쓸어내어 찬 그늘이 내리는 빈 뜰을 바라보고 싶다. 1988

반가사유상

국보 83호 반가사유상과의 첫 만남은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어느 박물관 관장님의 3년에 걸치는
끈질긴 설득으로 이루어진 사진 작업이었습니다.
1,400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낡고, 녹슬어진 이 조각물에서
퐁겨 나오는 그의 그윽한 표정이 보였을 때의 감동!
감동스럽다 못해 순간 목이 메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진가는 때로는 카메라 파인더 뒤에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왜?
무엇이?
나를 울컥하게 했을까?
이유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 당시는 설명하기 힘든 “그냥” “그냥”이
그 이유였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이유가 조금씩
알아지는 것 같습니다.
반가사유상과 마주할 때면 남이 아닌, 내가 나이고 싶은
어쩌면 비현실 속의 이상적인 나의 모습을,
그를 통해 보는 듯한 환희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반가사유상의 존재는 현실 속에서 낡고 녹슬어진 나의 몸뚱이



©JOON CHOI

안에 잠재되어 있는 원래의 “참나”를 만나게 해 줍니다.
내가 나이고 싶은 이상 속의 나를 말이지요.
말 없는 무언無言으로 말입니다.
내가 원래의 나를 만나는 정화된 공간!
그것이 반가사유상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준초이(b.1952)의 <반가사유상> 사진은 불교 조각의 걸작으로 꼽히는 우리나라 국보인 반가사유상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본 모습을 담고 있다. 그는 사진 인생에 대해 깊이 고민했던 시기에 반가사유상과의 내면의 대화를 통해 깊은 해탈의 경지를 발견한 인생의 결정적 순간이라고 표현하였다.

세상의 그대들

인디언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그대라고 불렀다지
 장애물 거슬러 오르는 연어에게도
 거센 힘으로 나무들을 쓰러뜨리고
 하루는 어린 나무의 옷깃 여며 주는 바람에게도
 전 생애를 걸고 피는 작은 풀꽃에게도
 약해지지 말라고 눈보라 속을 걷는 들소에게도
 태어나길 잘 했다고
 세상에 온 첫소감을 노래하는 박새에게도
 우리의 여행을 지켜보는 하늘의 늑대별에게도
 서둘러 떠나느라 아픈 기억을 잊은 반딧불이에게도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고 중얼거리는 새강에게도
 귀엣말처럼 내리는 봄비 속을
 돌 곳 없는 마음 데리고 다니는 나비에게도
 지난 계절의 슬픔을 정리하듯
 천 개의 기쁨을 켜고 피어 있는 사과나무에게도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아는 길에게도
 마주서면 참회할 일 많아지는 노을에게도

중앙모임 (02-741-4696)

■ 대학 장학생 하반기 장학금 지급 안내

(사)맑고 향기롭게는 2024년 제5기 대학 장학생 26명을 선발하여, 1인당 연간 400만 원씩(상, 하반기 분할지급) 지원하며, 지난 5월 장학증서 수여식, 6월 템플라이프를 가진 바 있습니다. 하반기 장학금은 장학생의 1학기 학업 성적 및 진로 계획서를 살핀 후, 11월 12일 지원하게 됩니다.

■ 2025년 탁상달력 우편 발송 안내

(사)맑고 향기롭게는 10월 말을 기준으로 연간 최소 3만 원 이상 후원해 주신 회원님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2025년 탁상달력을 11월 말~12월 초에 우편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10월 말까지 후원이 없지만 11월~12월 말 중에 3만 원 이상 후원하신 분은 2025년 1월 중순에 별도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간혹 후원회원 중에 개인적인 이유로 우편물 수신을 거부하여 탁상달력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는데, 사무국으로 전화 주시면 확인 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길상사 벽 달력이 필요한 분은 길상사 창건기념법회일(12월 15일)부터 길상사 종무실에서 나눠드리므로, 필요하신 분은 길상사에 방문하여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편 발송은 불가합니다.)

■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사는 일에 뜻을 함께해 주세요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 궁금한 점, 후원회 원님의 정보 변경(주소, 전화번호 등)이 있으면 본 모임 홈페이지(clean94.or.kr)에서 1:1 문의 또는 활동참여&문의를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청정한 마음과 따뜻한 세상, 그리고 자연을 더욱 맑고 향기롭게 가꿀 수 있는 여러 활동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소중하게 듣고, 답장 드리겠습니다.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 활동 : 4일(월)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책 읽기 모임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향기 우체부 소모임 : 격주 금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만발식당

- 반찬 나눔 자원 활동 :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뜨개질 소모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세계일화실 / 비대면 활동

■ 연말 재정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바구니 스님 학교 후원

대 구 모 임 (053-753-8883)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심리치료, 상담, 정서지원 운영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사각지대(아동, 청소년, 홀로어르신) 반찬 지원 활동 :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 경로 급식 및 웃음치료 :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전 9시
 - 성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 청도 운문사 봉사활동 : 매월 셋째 월요일 오전 8시30분 집결후 이동
 - 저소득층 자활, 중독자 지원 / 보호시설종료(자립준비) 청소년·청년 지원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무소유 기행 / 아나바다 공유 사업 비정기 진행
- **난치병 환우 돕기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함께' 운영(2층)**
 - 셀프 카페, 셀프 밥상, 공간 대여
- **법정 스님 문화관 운영(5층)**
- **각종 자원봉사 활동(1365 등록 기관)**

경 남 모 임 (055-266-0170)

-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봉림청소년문화의집)** : 저소득층 초·중·고학생 공부방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 **결연 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밀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광 주 모 임 (062-236-3129)

- **점심 공양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고령자,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진행
- **자비의 도시락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저소득 가정에 도시락 나눔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줍기 캠페인** :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를 참여 진행
- **독서, 노래 모임** :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교류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02-3672-5945)

초하루 기도

- 일시 : 11월 1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천수다라니 33독 3년 기도

- 일시 : 11월 2일(토) 오후 6시~8시 30분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공덕주 길상화 보살 기일

- 일시 : 11월 7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대입 수능 100일 기도 회향 및 추계 관음기도 회향

- 일시 : 11월 14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수능 30일 기도 입재

- 일시 : 11월 15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동안거 결제 및 보름기도

- 일시 : 11월 15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지장재일

- 일시 : 11월 18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관음재일

- 일시 : 11월 24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 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마가스님 열려라 참깨명상

'참 나를 깨우는 명상'

- 일시 : 매월 둘째 토요일 14:00~16:00
- 장소 : 설법전
- 동참금 : 회당 1만원
- 접수 :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선(禪)명상

- 일시 : 매월 넷째 토요일 19:00~21:00
- 장소 : 설법전
- 기간 : 7월 27일~11월 23일
- 동참금 : 15만원(총 5회)
- 접수 :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제20회 송광사 금강산림 대법회

- 일 시 : 11월 17일(일) 오전 10시
- 장 소 : 송광사 사자루
- 대법회 회향 : 길상사 주지 덕조 스님

일요법회 - 준한스님 (JustBe 흥대선원)

- 일 시 : 11월 24일(일) 오전 11시
- 장 소 : 설법전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신용카드 후원 나이스페이먼츠 시스템을 통해 후원자님의 신용카드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후원 방법을 신용카드 후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직접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회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여 직접 은행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지로 번호 7618372)

일시 후원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회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을 받아 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할 때, 직접 본회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정기 후원 · 회원가입

본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회원 가입 절차에 따라 각 지부를 선택하여 후원 등록하거나, 각 지부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각 지역 모임 후원 계좌

*중앙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3-129
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 이웃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 하나 220-890015-10204

*대구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 대구 002-05-016277-8

*경남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 농협 932-01-002933

*광주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